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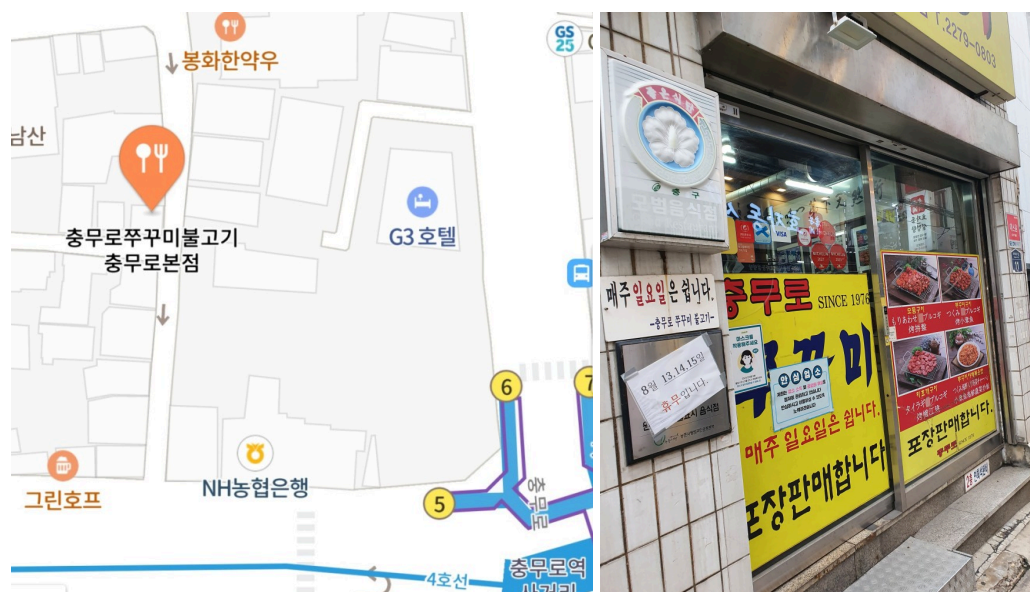
충무로쭈꾸미불고기 충무로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11

어제 봤던 올해 미쉐린 가이드 빙 구르망 선정 리스트에 충무로 쭈꾸미 불고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니는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위치였다.

학교 주변이면 한 번쯤 가봤을 법도 한데, 위치도 몰랐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 맛집 찾다 이름만 한 번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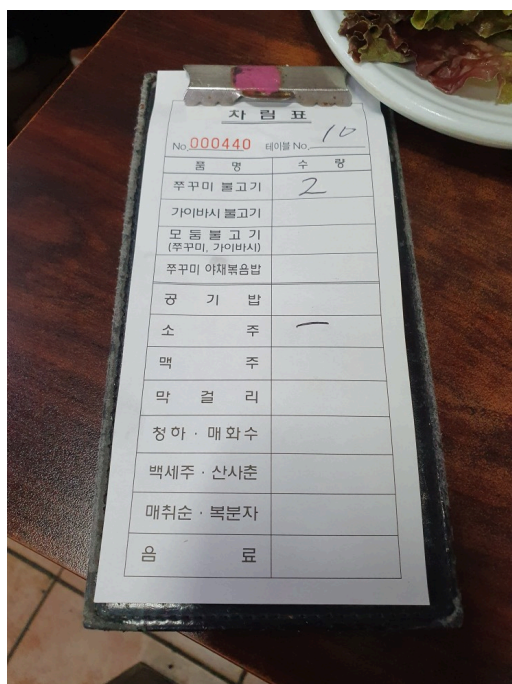
졸업하고 충무로 올 일 없어지기 전에 얼른 한 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후배랑 바로 다녀왔다.



식당은 충무로역 5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대로변이 아닌 안쪽 골목에 있어서, 지나다니다 발견하기는 좀 힘든 위치이다. 여태 모를 만도 했다.

오후 5시 10분경 도착했는데,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성인 남자 둘이서 쭈꾸미 불고기 2인분과 쭈꾸미 야채볶음밥, 소주를 주문했다.

가격은 쭈꾸미 불고기 2인분 2만 8천 원, 쭈꾸미 야채볶음밥 7천 원, 소주 5천 원이다. 소주 값이 많이 올랐다.

사장님께서 임영웅을 좋아하시는지, 식당 곳곳에 임영웅 사진이 있길래 찍어봤다.



깔끔하게 싸매여진 소주 잔이 나왔다. 수저는 봐어도 소주 잔이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봤다.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이 식당이 위생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나온 쭈꾸미 불고기와 냉 콩나물국, 상추와 안 매운 고추, 마늘, 쌈장. 깔끔하게 나왔다.



맛있게 구워지는 쭈꾸미 불고기.

그냥 구우면 쭈꾸미 불고기가 자꾸 불판 사이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불판에 수직으로 얹으면 떨어지려는 게 좀 덜하다.

사진 찍는다는 핑계로 후배가 열심히 구워주는 동안 구경만 했다.



숯불에 불판을 반만 걸쳐서 올려주셨는데, 아마 불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다.
반만 걸쳐 올리면 반대쪽 면까지 두 번 쓰고 바꿀 수 있으니!
숯불이 닿지 않는 면은 다 익은 찜닭을 올려놓기에도 적합했다.

찌닭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먹은 냉 콩나물국이 생각보다 맛있었다.
미원을 넣은 것인지 간간하고 감칠맛이 가득했는데, 기분 좋게 갈증 해소가 되었다.
내가 냉 콩나물국 맛있게 먹는 걸 보셨는지, 직원분께서 내가 그릇째 마시고 내려놓자마자 바로 리필해 주셨다.
그것도 마시고 내려놓으니까 또 한 번 리필해 주셔서 너무 웃겼다 ㅋㅋㅋ



찌닭이 조금 남았을 때 직원분께서 숯불과 불판을 빼고 그 자리에 찜닭 야채볶음밥을 가져다주셨다.
밑반찬 두 가지와 된장찌개도 추가로 나왔다. 된장찌개는 아는 맛보다 조금 짜게 느껴졌는데, 진하니 맛있었다.
찌닭 야채볶음밥 자체에는 찜닭이 없고, 찜닭 불고기 굵고 남은 것을 얹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찌닭이 들어가지 않은 걸 생각하면 7천 원 볶음밥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긴 한다.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퇴근 시간 다가오고 손님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자리 비켜주려고 나왔다.

찌닭은 딱 술안주였다.
찌닭만으로 배를 채울 만큼 양이 많진 않지만 숯불 향이 좋고 맛있는.
여기에 볶음밥까지 먹어주니 한 끼 식사로 충분했다.
양념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맛에, 맵지 않은 것 같다가도 뒤늦게 올라오는 매콤함이 일품이었다.
찌닭 먹으면서 마요네즈와 날치알, 김가루 주먹밥도 같이 곁들이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다만 가게 특색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실제 메뉴 추가를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이 식당은 크게 기대하고 갔던 곳이 아니다.
오히려 모험에 가까웠다.

식당에 오기 전 확인한 리뷰에 서비스에 대해 좋지 못한 평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밥 구르망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 기준에서 식당의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도 맛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후배까지 데리고 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걱정이 무색했을 만큼 대성공이었다.

사장님인지 직원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응대해 주신 분들 모두 친절하셨다.

테이블을 꾸준히 지켜보시고 불판은 제때 제때 위치 바꾸고 갈아주셨다.

중간중간 이 정도 익히면 적당하다, 너무 익히지 않아도 된다,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는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관심이었다.

다행히 나는 관심이 챙겨주시려는 마음으로 느껴져서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식사하는 동안 가게가 좀 한가로웠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같기도 하다.

참고로 '낙지와 비슷한 문어과의 연체동물'을 뜻하는 단어는 '주꾸미'이다.

'주꾸미'는 표준어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식당에서 표기한 '쭈꾸미' 그대로 사용하였다.